

무안,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건설기계 엔진교체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등 지원

무안군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 1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3대 등 총 31대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사용분가지 무안군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 대상이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규제 기준 이하(Tier 1)의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굴삭기 대상으로 시행하며, 장치 규격에 따라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1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며, 현장 방문(무안군청 환경과) 또는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진단시스템)으로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최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어 탄소중립포인트제(cpoint.or.kr)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무안=김상문 기자

목포, 양대체전대비 안전교육 실시

심폐소생술 · 응급상황 대처 등 교육

목포시가 오는 5월 열리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대비해 각 경기장에 투입되는 시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남포동 트윈스타 3층(고혈압 · 당뇨 등록센터 교육장)에서 8일과 오는 11일 이틀에 걸쳐 각 3시간씩(오후 2시 ~ 5시) 2회로 나눠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시 보건소와 해당보건지소에서 근무하면서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에 투입될 간호직 공무원 및 경기장별 일일상

황실 근무 직원 50명(공무원으로, 1일 25명씩 나눠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목포한국병원 응급의학 교육팀 3명이 출강해 진행되는데,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체전 중 발생하기 쉬운 사례별 응급환자 대처법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양대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관계자 등이 안전한 의료환경 속에서 그동안 갖고 두은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재욱 기자

신안,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18명 위촉



신안군은 5일, 신안군가족센터 교류소통공간실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개 모집한 18명의 청소년참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소년 참여 활동 기본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임원 선출, 분과 선정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군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배우면서 성장, 발전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신안군의 청소년이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기회의, 캠페인, 다른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신안=김복록 기자

진도, 지난해 1억 이상 고소득 어업인 376명

고소득 어업인 조사 결과... 2022년 대비 1.3% 증가

양식어업 종사자 85.9%...전북 1254억원 · 김 1153억원

진도군이 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어업인을 발굴 · 홍보하고 군 수산업의 희망과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해양수산 정책 수립 자료 활용을 위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억원 이상 고소득 어업인은 2022년 371명에서 1.3% 증가

한 376명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역별 고소득 어업인은 의신면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군면 135명, 조도면 31명, 군내면 24명, 임회면 19명, 지산면 15명, 진도읍 7명 등이다.
업종별은 ▲양식어업 종사자 323명(85.9%) ▲어선어업 종사자 14명(3.7%) ▲가공 · 유통 분야 18명

(4.8%) ▲기타 21명(5.6%)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1억이상~2억미만의 소득은 206명으로 전체 54.8%를 차지했고 2억이상~3억미만은 92명 24.5%, 3억이상~10억미만의 어업인은 71명 18.9%, 10억이상은 7명 1.8%로 집계됐다.
군은 고소득 어업인의 증가요인을 양식어업인의 소득 향상과 군의 지

속적인 어업활동 지원 등으로 꼽았다.
김의 경우 지난해 조수입 1,153억원, 전북은 1,254억원을 기록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앞장 선 일등 공신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관내 어가의 양식어업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양식어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식어업을 비롯한 가공 · 유통 · 어선어업 등 진도군의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석달 만에 1억원 돌파

왕인문화축제 기간 기부 잇달아... 경남 산청군과 2년 연속 상호기부도

영암군은 올해 석달만인 지난달 31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성과는 지난달 28~31일 열린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줄을 이으면서 한 몫했다.
축제에서는 박찬모 재경영암군향우회장을 포함해 오형근 재경영암군향우회장, 오남호 영암한국병원장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임정빈 영암군농협지부장은 농협 재경영암군향우회를, 서운중 NI 농협 손해보험 부장은 농협재경영암군향우회를 대표해서 이 행렬에 동참했다.
자매결연도시인 영암군과 경남 산청군도 2년 연속 상호기부도를 약속하고, 각 지자체의 250명 직원들이 참



여해 2500만원 씩을 교차 기부키로 했다.
영암군의 올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기부가 662건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기부도 12건 3300만원에 달한다.

연령별 기부자는 40~50대가 가장 많은 전체 기부자 중 64%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블금불과 시즌2’ 오는 19일 개장... 콘텐츠 강화

‘한골목 열린 정원 투어’ 새롭게 선보여... MZ 관광객 입맛 저격

강진군이 오는 19일부터 ‘강진 블금불과(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시즌2행사’를 앞두고 콘텐츠를 강화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진 블금불과 행사는 올해 강진 반값 여행의 해를 맞아 시즌2로 돌아오며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7개 실과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행사장 환경정비에 나서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먹거리의 다양화를 위해 행사 음식점 및 매대 운영자를 모집해 올해는 불고기 음식점 1개소, 분식 1개소, 매대 4개소와 청년 셰프존을 새롭게 구성해 가족 단위 관광객 및 MZ 관광객들의 입맛 저격에 나선 예정이다.
블거리와 즐길거리도 더 강화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한 떡메치기 체험을 상시 진행하며, LED틀립과 대형 꽃 조형물로 포토존을 강화해 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인생샷 명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블금불과와 백미인 EDM DJ와 함께하는 댄스파티는 매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돼 축제 참가자들이 주말을 불태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올해도 블금불과 행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지난해에는 없었던 ‘한골목 열린 정원’이 새로운 볼거리로 마련된다.
한골목 열린 정원 투어는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1회씩 마을 탐방에 나선다.

/강진=한홍수 기자

완도, 이마트 90개 지점서 전북 최대 50% 할인 행사

전북 주산지인 완도군은 오는 11일까지 전국 이마트 90여개 지점에서 ‘완도 전북 최대 50% 할인 판촉전’을 연다.
4월부터 5월은 품질 좋은 전북 홍수 출하로 복날이나 명절에 비해 수요가 적어 가격이 하락해 전북 생산 어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전북 소비 촉진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판매 가격의 할인 폭을 높여 이마트와 함께 판촉전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4월 5일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최재순 이마트 용산점장, 이승철 (주)행복한전북 대표가 이마트 용산점에서 판촉전의 시작을 알리며, 전북 구매 고객에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완도 순살 전복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판촉 행사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은 부담 없이 전복을 구입하고, 판매 증대로 이어져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맛도 좋고 품에도 좋은 완도 전복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란다”면서 “전복 홍수 출하로 인한 어가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도 전복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2024 강원고수산물 축제

2024. 5. 3.(금) ~ 5. 6.(월) | 4일간 |
완도해변공원 일원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

주최 | 완도군 주관 | 강원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